

예수님 안에 머무는 선교사가 되기를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것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4-5, 새 한글성경)

세계가 점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최대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더 많은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 속히 전쟁이 그치고 공의와 진리가 살아 있는 참된 평화가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도시샤대학의 사역



지난 2025 년은 아마도 제게는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바빴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간에 1,000 명이 수강하는 인터넷 수업 두 강좌를 포함해서 7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고 기독교 관련 행사도 무척 많았습니다. 8 월과 9 월에는 아시아기독교대학협의회(ACUCA) 여름

학생 캠프(왼쪽 사진) 및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9 월에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 아웃리치를 다녀 왔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 월에는 도시샤대학의 창립 150 주년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기념 행사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도시샤대학과 도시샤교회가 주최하는 150 주년 기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12 월에는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를 주관하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 대강절 예배, 도시샤 성탄 풋볼 예배, 성탄절이브 예배 등이 있었고, 수백명이 참석한 성탄 풋볼 예배와 라쿠사이교회에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아래 사진).



일본에서 성탄절은 기독교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일본인들에게 교회와 예배에 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바쁜 일정이었던 만큼 보람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선교사가 되기를

3. 평화 교육 중 일어난 사고

지난 3 월 16 일, 도시샤대학교와 같은 학교 법인 소속의 도시샤국제고등학교가 비극적인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이 학교는 수학여행을 ‘평화 교육’으로 실행하며 이를 위해 2 차세계대전중 지상전의 참극을 경험한 오키나와를 방문합니다. 오키나와는 전쟁 중에 약 9 만 4 천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고, 패전 후 27 년간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일 미군기지의 70%가 집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여러 인권,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그 어느 곳 보다도 평화 운동이 활발하며 이를 견학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시샤국제고등학교도 그 가운데 하나였는데 학생들이 오키나와 기지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선박에 올라탔다가 갑작스러운 파도에 배가 전복되어 학생 한 명과 그 배의 선장(평화운동가, 목사)이 생명을 잃고 만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이 도시샤국제고등학교의 평화 교육을 문제시하고 오키나와의 평화 운동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동지사 관련 학교 전체에 여러가지 면에서 더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학생과 평화 운동가의 가족과 관계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본 사회 안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과 운동이 위축되지 않고 새롭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4. 무목교회 사역 시작

4 월부터 오사카에 있는 일본기독교단 가모교회(蒲生教会)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일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10 여명 정도인 작은 교회로서 무목교회이기엔 섬기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대무목사(임시당회장)으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머무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저희의 말씀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모교회에 흘러가기로 소망합니다.

5. 일본의 심각해지는 우경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체제에서 하원에 해당하며 총리 등 보다 실질적인 권력과 관계된 중의원 선거가 지난 2 월 8 일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집권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를 발판 삼아 일본도 방위비 증가, 원전 재가동, 일본 국가주의 등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정당화되고 보수적인 정권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약자의 보호, 인권 등의 기독교적 가치를 교육하는 일의 더 중요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복음과 그 사회적 가치를 더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가르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6. 가족



안미연 선교사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그리고 기독교의 이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용이는 대학원 2 학년이 되면서 구직 활동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남 지민이는 불가리아의 소피아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중입니다. 모두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더욱 성장하고 있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선교사가 되기를

6. 기도제목

1) 저희 가족 모두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안에 머물러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새학기의 시작과 더불어 도시사대학의 교목 사역 가운데, 수업과 채플 및 여러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학생들 및 교직원들과 신실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3) 새롭게 섬기는 가모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4) 안미연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 만나는 일본인과 깊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5) 지용이, 지민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용이의 직장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민이의 남은 불가리아 유학 기간이 특별한 은혜와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 가정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